

세계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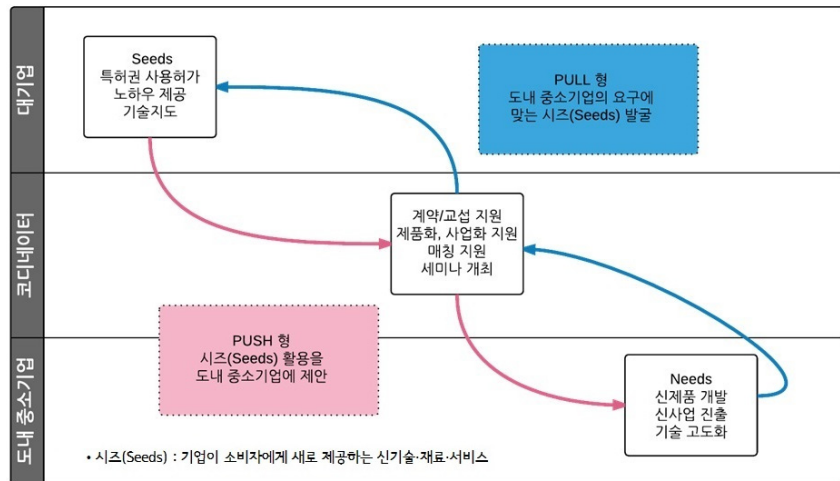
헤드라인뉴스	1	대기업·연구소·대학 지적재산 활용해 신제품 개발 지원	도쿄
문화·관광	3	도시세 수익금으로 전업예술가에게 지원금 보조	베를린
사회·복지	5	65세 이상 노인 구직자에 직업 체험의 장 제공	도쿄
	7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세우고 中企고용박람회 개최	도쿄
행재정·교육	9	‘아이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어린이 비만 예방프로그램 진행	버밍엄
환경·안전	11	주거용 아파트의 친환경성 향상 10년 계획 시행	시드니
도시계획·주택	13	도시정부·NGO·시민이 함께 만드는 ‘거리공원 매뉴얼’ 발표	샌프란시스코

대기업·연구소·대학 지적재산 활용해 신제품 개발 지원

로봇·CG·3D 프린터 등의 특허기술 中 小 企 대상 매칭 설명회 개최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 일본 도쿄都와 도쿄도 중소기업진흥공사는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도쿄도 지적재산활용 제품화 지원사업(東京都知的財産活用製品化支援事業)'을 시행
- － 지원사업의 배경
 -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과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특허 보유기관들은 특허를 유상으로 제공하여 신제품 개발에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음.
- － 지적재산권 활용분야 및 조정활동
 - 활용분야 : 로봇, 3D 프린터, CG, 센서 등 3차원적 기술분야
 - 조정활동(coordinating) : 도쿄도 중소기업진흥공사 소속 코디네이터가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기업과 사용하는 기업 간의 기술 이전을 지원
- － 지원사업의 절차
 - 도쿄도는 특허를 제공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특허를 선별한 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공기업과 수여기업을 연결함.
 - 도쿄도는 연결된 기업 간 특허 사용 승인 계약, 기술 이전 및 제품 개발, 사업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



지적재산 활용 제품화 지원사업의 개요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5/08/DATA/22p8v200.pdf>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5/08/22p8v200.htm>

문화·관광

도시세 수익금으로 전업예술가에게 지원금 보조

독일 베를린市 / 문화·관광

- 독일 베를린市는 2014년 도입한 도시세(City Tax)를 재원으로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자립예술가들을 위해 대규모 추가 지원을 실시
- 지원 배경
 - 베를린시는 매년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립예술가들을 선발해 작품활동, 작업공간,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
 - 시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도시세를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자립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
 - 올해 추가지원금은 330만 유로(44억 원)임.
- 도시세의 주요내용
 - 베를린시는 2014년부터 유럽의 다른 관광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세를 도입하여 베를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숙박요금의 5%를 도시세로 부과
 - 시는 연간 도시세 수입을 2천5백만 유로(332억 원)로 예상했으나 2014년에는 2천9백만 유로(386억 원)의 수익이 발생
 - 도시세 도입 당시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했으나 과세 후에도 관광객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1천2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 시는 올해 도시세 수익을 작년보다 1천만 유로 증가한 4천만 유로(530억 원)로 예상
- 추가 지원 내용
 - 베를린시는 9월 미술분야 신청자 중 38명의 미술가와 5명의 독립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작업지원금과 연구지원금으로 1인당 8천 유로(1,064만 원)씩 지급
 - 또한 무대예술, 문학, 재즈, 클래식 음악을 하는 예술가 중 14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

<http://www.berlin.de/sen/kultur/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5/pressemitteilung.367587.php>

<http://www.berlin.de/sen/kultur/foerderung/foerderprogramme/artikel.329625.php>

<http://www.tagesspiegel.de/berlin/umstrittene-bettensteuer-berlin-verdient-30-millionen-euro-im-schlaf/11530554.html>

사회·복지

65세 이상 노인 구직자에 직업 체험의 장 제공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일본 도쿄都는 취업 의욕이 강한 65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체험 65(しごとチャレンジ65)’ 사업을 2015년 10월부터 시행
- 사업 배경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로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대책이 시급
 - 도쿄고용센터에 따르면 2014년도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000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
 - 1,800명의 구직자 중 약 40%가 65세 이상임.
- 사업의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구직자와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도내 기업을 모집한 후 고용을 목표로 구직자가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
 - 업무체험은 1일 3시간 정도로 최대 3일간 실시하며, 기업은 업무체험 종료 후 1일 5,200엔(약 5만 2천 원)의 사례비를 지급
 - 업무체험을 한 구직자가 고용되고 후생노동성(省)이 정한 고용요건을 충족시키면 국가보조금이 지급됨.
 - 보조금의 지급요건은 구직자가 고용 시점에서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무가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함.
- 도쿄도의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구직자의 채용의사 조사
 -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구인정보를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제공
 - 6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체험 사업 실시
 - 직업체험 참가자에 대한 1:1 개별 상담 등 구직 지원 실시

- 사업의 기대효과
 - 구직자는 미숙한 직종이나 기업의 분위기를 체험
 -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이해 증진

http://www.tokyoshigoto.jp/news_topics.php?kbn=1&page_id=150&data_id=6679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세우고 中企고용박람회도 개최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일본 도쿄都는 2024년까지 장애인 고용을 4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취업 추진 연계 프로그램 2015(障害者雇用・就労推進・連携 プログラム 2015)’를 수립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설치
 - 구와 동 단위로 장애인 취업지원센터(50개소)를 설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 직장 정착 등을 지원
 - 또한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6개소)를 설치하여 취업에 따른 생활 측면도 지원
 - 직업훈련 실시
 - 도쿄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 등에서 직업훈련을 실시
 -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
 - 취업지원기관 지원인력의 육성
 -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필요한 업무 관련 교육 실시
 - 기업과의 접촉, 기업과 장애인 매칭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 기업과 의견교환의 장 마련
 - 장애유형별 지원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 고용 챌린지 사업
 - 도쿄도 청사에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단기간 고용하여 업무 체험의 기회 제공
 - 이를 위하여 2013년에 도입한 임시직원제도(6개월)와 더불어 비상근 직원제도(1년간 고용)를 신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노하우에 관한 강좌 실시

- 업무내용의 제안과 정착을 위한 노하우 제공
- 정신장애인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고용 전 근무환경 등의 정비부터 채용 절차, 채용 후 고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장기간 실시
-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등을 소개하는 ‘장애인 고용 지원 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추진을 도모
- 장애학생의 직업적 자립을 위한 교육 추진
 - ‘취업기술과’, ‘직능개발과’ 등을 설치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희망 진로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5/09/20p9i600.htm>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ugai/shougai_shisaku/shutotokyokodosengen/2015.html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ugai/shougai_shisaku/shutotokyokodosengen/2015.files/02.mokuji_2015.pdf

행재정·교육

‘아이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어린이 비만 예방프로그램 진행

영국 버밍엄市 / 행재정·교육

- 영국 버밍엄市는 어린이 비만 문제를 시민의 건강과 웰빙 관련 10대 이슈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2012년부터 어린이 비만 예방프로그램인 ‘스타트웰(Startwell)’을 보급
 - ‘스타트웰’은 버밍엄시가 어린이 비만의 예방과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임.
 - 시는 어린이 비만의 중점적 관리를 위해 영국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푸드넷(Food Net), 임상 커미셔닝 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버밍엄어린이병원(Birmingham Children’s Hospital)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
- ‘스타트웰’의 배경
 - 과체중과 비만인 어린이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버밍엄시의 10~11세 어린이의 4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이 중 25%는 치료가 필요한 비만임.
- ‘스타트웰’의 주요목표
 - 어린이들의 건강한 육체적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제공
- ‘스타트웰’의 중요성
 - 비만은 삶의 질의 하락과 더불어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생산성까지 하락시킴.
 - 다음 세대에 버밍엄시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비만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의 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 중요함.
- 2015년 9월 현재 버밍엄 소재 338개의 어린이집, 아동센터, 유치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

-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지출해야 할 예산은 2050년까지 연간 26억 파운드(4조 7,200억 원)로 추정

<http://birminghamnewsroom.com/startwell-success-as-birmingham-tackles-childhood-obesity/>

<http://startwellbirmingham.co.uk/>

환경·안전

주거용 아파트의 친환경성 향상 10년 계획 시행

호주 시드니市 / 환경·안전

- 호주 시드니市는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주거용 아파트 지속가능성 계획(Residential Apartments Sustainability Plan)’을 수립
 -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에 따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시가 담당할 역할 등을 제시
- ‘지속가능성 계획’의 수립배경
 - 2013년 현재 시드니시 시민의 7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8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시드니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임.
 - 현행 탄소배출 기준이 유지될 경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서 목표한 탄소배출 목표치에 45%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 시드니시가 2011년부터 3년간 ‘친환경 녹색아파트 프로그램(Smart Green Apartments Program)’을 시행한 결과 파트당 탄소배출은 연간 3천 톤 감소하였고, 에너지 사용료는 연간 최대 9만 호주달러(약 9천만 원)까지 절약됨.
- ‘지속가능성 계획’의 5대 목표 및 실행계획
 - 1) 아파트의 시설과 설비의 혁신 장려(Foster Innovation)
 - 아파트 건설회사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설계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과 설비의 도입 장려
 - 아파트 구매자들에게 친환경 아파트의 장점을 이해시키고 저탄소배출 아파트가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례 구축 및 배포

2) 아파트의 환경기준 상향 조정(Raise the Bar)

-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서 제시한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가 제시한 ‘건물의 지속가능성 지수(Building Sustainability Index)’보다 높은 탄소배출 기준치를 설정

3) 아파트의 환경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설비의 개선, 태양광전지 설치 등에 관한 워크숍 개최
- 또한 이들에게 건물의 환경역량 강화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 아파트단지 프로그램(Smart Blocks Program)의 활용 권장

4) 기존 아파트의 환경 수행능력 업그레이드(Activate Upgrades)

- 기존 고층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장비의 설치와 활용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

5) 아파트단지의 자율성 강화(Empower Communities)

- 상가건물에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주거용 아파트단지에 적용
- 아파트 소유주들과 관리업체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권장

– 실행 및 모니터링

- ‘지속가능성 계획’은 10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매년 진행상황을 점검
-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5년 후 실시하며, 사업 종료 후 다시 검토하여 2030년까지 시행될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

<http://www.sydneymedia.com.au/five-stars-for-the-citys-apartment-sustainability-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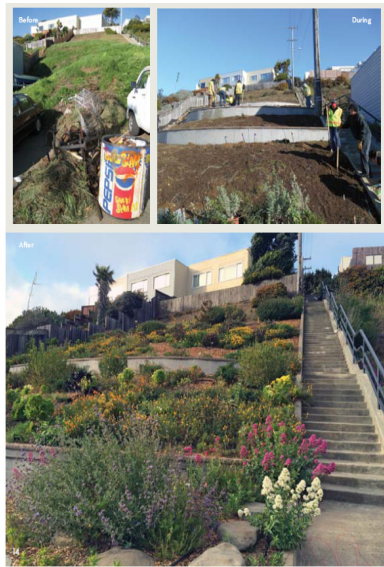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6/231370/150420_EC_ITEM04_ATTACHMEN TA.PDF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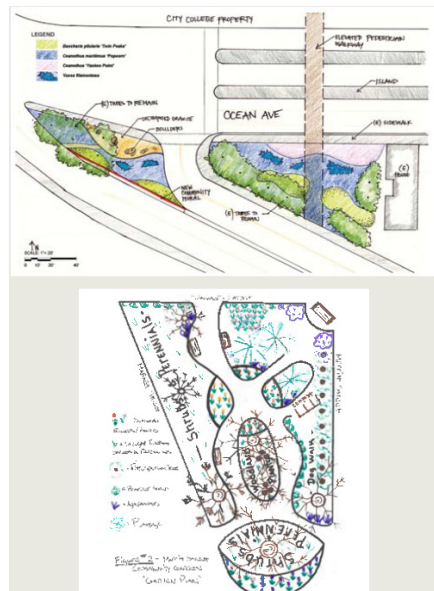
도시정부·NGO·시민이 함께 만드는 ‘거리공원 매뉴얼’ 발표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도시계획·주택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시 소유인 나대지나 유희지 등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거리공원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올해도 이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목표, 개발 과정 및 절차,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2015 거리공원 조성 매뉴얼’을 제작
- 거리공원 조성 개요
 -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소유 공공용지 중에서 필지가 작거나 여러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공원 조성
 - 거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제안하고 NGO와 시정부가 함께 거리공원을 만든 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 시는 2004년부터 거리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 승인, 초기 정착단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실시
- 거리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시정부, 지역사회 주민, NGO 등 사업 제안자는 공원의 조성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
 - 거리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8~12명의 자원봉사자 확보
 - 거리공원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현장 답사, 주변 환경조사 등을 실시
 - 수자원 절약을 위한 주정부 정책 등에 맞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종 선정
 - 시정부에서는 초기 3년간의 수도요금을 지원하나, 이후 수도요금은 자체적으로 해결
 - 거리공원의 관리현황을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거리공원 조성 전, 공사 중, 조성 후의 모습



거리공원 제안 도면의 예

- 도시공원 조성 시 고려사항
 - 물 사용의 최소화
 - 영구 구조물 축조 금지
 - 기존 식재의 유지
- 거리공원 조성의 혜택
 - 지역사회 환경미화와 삶의 질 개선
 -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지역과 잘 어울리는 공원 조성
 -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줄이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활용

<http://sfdpw.org/Modules/ShowDocument.aspx?documentid=4969>